

손도 못대는 ‘축사’…황룡강 수질 더 나빠진다

5년 만에 수질 2등급으로 추락…축사 오염 비중 68% 차지
지자체 토지 매수 예산 감소세…매입·관리 대책은 ‘제자리’

환경당국이 황룡강 수질 악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축사 개선 방안을 내놓은 채 수질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알맹이 빠진’ 오염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염원으로 지목된 축사 규모마저 커지면서 축사 매입을 통한 황룡강 주변 수계 관리가 절실한데, 관련 예산이 매년 줄어들다보니 오염원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게 당국 하소연이다. 이 때문에 황룡강 상류 수질이 5년 만에 2등급으로 추락한 주요 원인으로 ‘축사’를 지목하고도 정작 겉도는 대책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형편이다.

최근 환경부가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2025년 수질 측정 자료에 따르면 영산강 수계 황룡강 수질은 3.06mg/ℓ으로 2등급에 머물렀다. 2020년(2.48mg/ℓ·1등급)보다 악화된 수치다.

환경당국은 황룡강 상류의 축사로 인한 오염이 심각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2024 전국오염원 조사(2023년 말 기준 데이터)’에 따르면, 황룡강 상류 유역의 비점오염원 중 축산계가 차지하는 총인(T-P·Total phosphorus) 부하량 비중은 68.4%에 달한다. 총인은 생활하수 뿐만 아니라 농

업배출수, 축산분뇨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농도 증가시 하천 오염 및 생태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다.

환경부가 2025년 발표한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통계’를 보더라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 중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돼 정화되는 비율은 19.2%에 불과한 상황이다.

나머지 80여%는 농가에서 액비(액체 비료) 등으로 처리돼 인근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으며, 이것이 강물로 흘러들어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오염원인 축사 규모는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자료상 전남 지역 한우 사육 마릿수는 지난 2018년 50만 3000마리에서 2022년 61만 5000마리로 단 4년 만에 10만마리 이상 늘었다. 지난 2024년 말 기준으로는 62만 4000

마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하천 오염 및 생태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축사 규모가 커지는 만큼 오염원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축사 등을 매입해 녹지로 바꾸는 환경 당국의 ‘상수원 상류지역 매수사업’은 지지 부진한 실정이다.

당장, 영산강 수계 토지 매수 예산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편성된 매수 예산은 193억 원으로, 지난 2024년과 2025년 각각 233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17% 삭감됐다. 이는 2023년(217억 원)보다도 낮은 최근 4년 내 최저치다.

또 영산강 유역에서만 매수 대가자가 2000여명을 넘어서면서 황룡강 인근 축사 주인들은 상수원 인근의 땅들에 밀려 매수 순번에서 하위권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매수 대상 조건상 주암호·동북호 등 상수원 지역에는 최대 15점의 가점이 부여되지만, 황룡강 본류 지역은 가점이 전무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상수원 상류에 위치한 오염원(축사, 공장, 음식점 등)을 우선적으로 매입해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 사업의 기본 취지”라면서 “토지매수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예정이라 매입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다. 전체 기금 예산 중 주민 지원 등 다른 사업이 더 필요할 경우 토지 매수비를 줄여서 나눠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4일,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성천 등 17개 지류·지천에 대한 수질 악화 원인 규명 및 개선 대책 수립 용역에 긴급 착수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두쫘쿠·아이돌 포토카드… ‘헌혈 오픈런’ 될까

혈액 부족에 비상 걸린 광주
23일부터 이색 기념품 제공

“헌혈 하면 ‘두쫘쿠’(두바이 쫘득 쿠키)를 준 다던데, 맞나요?” “지금 헌혈하면 엔하이픈 오빠들 포카(포토카드) 받을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혈액 보유량이 바닥을 친 가운데 광주 지역을 비롯한 혈액원들이 독특한 ‘유인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헌혈 기념품으로 세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그룹의 ‘포카’를 제공하는 가 하면, ‘품질 대란’을 겪고 있는 ‘두쫘쿠’를 기념품으로 앞세우는 등 헌혈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일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전국 평균 혈액 보유량은 4.2일분으로, 적정 보유량인 5일분에 못 미친다.

광주·전남 보유량 역시 평균 4.1일분(O형 3.8일분, A형 3.6일분, B형 5.8일분, AB형 3.3일분)으로 적정 수준을 밑돌고 있다. 올해 전국 누적 헌혈 참여자는 12만3224명이며, 이 가운데 광주·전남 참여자는 8238명(6.68%)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자 혈액원은 커피·햄버거 교환권, 문화상품권 등 기존 헌혈기념품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기념품 찾기에 나섰다.

지난 16일부터는 ‘엔하이픈 X 대한적십자사’ 온·오프라인 헌혈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는 ‘헌혈 오픈런’이라는 말까지 이끌어냈다. 오는 25일까지 헌혈자 가운데 1000명을 추첨해 엔하이픈 미공개 포토카드 1세트를 증정하는 행사다.

혈액원은 지난 2024년 세븐틴과 제로베이스원 등 인기 아이돌 포토카드를 헌혈 기념품으로 제공했을 당시 신규 헌혈자 수는 69% 증가한 것



20일 광주시 동구 헌혈의집 총장로센터에서 헌혈자가 헌혈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받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으로 집계됐다.

헌혈의 집 터미널센터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김소원 씨는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덕에 방문하는 이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엔하이픈이라는 보이그룹 인기가 높다 보니 포토카드 응모를 위해 헌혈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도 듣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헌혈을 한 조성아(여·22)씨는 “요즘은 올리브영 상품권을 받으려고 헌혈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 주변에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형(26)씨도 “예전에는 영화관람권 때문에 헌혈했는데, 영화쿠폰 지급이 중단되면서 요즘은 포카에 두쫘쿠까지 준다”고 하니 공공해서라도 헌혈을 하러 오게 되더라”고 말했다.

광주전남혈액원 9개 헌혈 센터에서는 오는

23일부터 ‘두쫘쿠’를 기념품으로 내걸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이미 서울, 경기 등 지역에서 두쫘쿠를 기념품으로 내걸자 헌혈자가 몰려 줄서는 등 ‘오픈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광주전남혈액원 관계자는 “광주·전남 지역 10~20대 헌혈자가 10년 새 43.6% 감소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 두쫘쿠를 제공하니 효과가 좋다고 했던 만큼, 광주전남에서도 자체적으로 두쫘쿠 제공을 기획 중”이라며 “통계상 30~50대 다회 헌혈자는 늘고 있는 만큼, 초회 헌혈자가 다회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또 눈폭탄?…광주·전남 10cm 예상

21~22일 강한 눈 내릴 듯

광주·전남 지역에 전남서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10cm 눈이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1일 새벽부터 전남서해안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는 광주와 전남중부내륙으로 확대되겠다고 20일 예보했다.

21일부터 22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전남서해안이 3~8cm, 많은 곳은 10cm 이상이다. 광주와 전남중부내륙, 서부남해안에는 1~5cm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특히 전남서해안은 21일과 22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며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 눈은 토요일인 24일 오전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비가 내릴 경우 전남서해안에 5~10mm, 광주와 전남중부 내륙에 5mm 미만이 내리겠다.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강한 추위가 이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도 낮아 매우 춥겠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남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 영하9~영하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2~1도에 분포하겠다. 22일은 추위가 최고조에 달해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11~영하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1~2도를 보이겠다. 23일은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8~영하1도, 낮 최고기온은 3~6도가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비닐하우스 등 구조물 붕괴 위험이 있으니 시설물 피해에 대비하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정부 “2037년 의사 2500~4800명 부족”

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2500여명에서 4800명 사이일 것으로 추정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4차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을 논의했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 의료정책 심의기구로, 현재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등을 심의하고 있다.

위원들은 이날 보건 의료 기술발전 및 근무환경 등 의료환경 변화 가능성과 정책 추진방향을 고려해 추계위의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적게는 2530명에서 많게는 4800명이다.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말 추계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2040년 기준으로 5704~1만 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가 이달 초 보정심 2차 회의 제출한 정정 자료에서 2040년 부족한 의사의 수를 5015명~1만 1136명으로 낮춰 잡았다. 이날 보정심이 채택한 6개 모형은 이보다 의사 부족 규모를 더 낮춰 잡은 셈이다.

위원들은 또한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달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6-1 광신대학교 평생교육 PROGRAM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2026. 1. 12.(월) ~ 2. 13.(금)
- 신청방법 방문 신청(중앙도서관 1층 교학처), 이메일 신청(gsu23417@naver.com)
- 교육문의 062)605-1023, 1063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

3월 초 개강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색채심리상담 전문가 양성과정 _ 화 9:00
아로마 테라피스트 과정 _ 월 10:30
파크골프 지도자 2급 과정 _ 금 9:00 / 토 9:00
흥미만점 영어회화 _ 금 14:00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www.kwangshin.ac.kr

2026학년도 1학기 비전신학원 신입생모집

지원자격 : 세례교인 이상으로서 담임 교역자 추천을 받은 자
※단, 전문인 사역자 과정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문의 062)605-1023, 1063

2년 4학기 [주 2일 야간]
(월·대면/화 비대면)
여전도사 과정
중직자 과정
평신도 사역자 과정